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연구논문

욕망표출에 대한 자아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프린트전공

최 윤 아

욕망표출에 대한 자아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프린트전공

최 윤 아

인 준 서

최윤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2006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옥
망
표
출
에
대
한
자
아
표
현
연
구

최
윤
아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전개 과정에 있어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 속에서의 자아존재 확인에 대한 욕망을 현실세계로 끌어 들이는데 있으며, 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일상의 경험이 무의식적인 욕망으로 환상과 혼적으로 표현한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고 조형적 성과와 작품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려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본인이 여성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현실 속에서 여성적 자아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여성 고유의 주체성을 반영하여 내재된 욕망 표출을 위해 자신의 내부·외부를 오가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험을 반 의식적으로 표출시켜 자기극복의 과정으로 삼는다.

본인은 작품의 조형적 방식으로 판화와 오브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다. 본인의 작품들은 일상의 다양한 감정 속에 내재된 욕망을 상징적인 형상, 감성적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논리적 사고의 표현보다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표출하여 자아를 표현함에 있다. 삶에 단편이나 예술이 정서적인 활동도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욕망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본인의 감추어진 자아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봄으로써 본인의 작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의 가능성을 구축하여 앞으로의 작업 활동에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업동기	3
2. 작품의 내용적 측면	4
1) 주체와 욕망	4
2) 환상과 꿈	6
3) 욕망의 주체로 표현되는 옷	8
3.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요소와 방식	12
1) 상징적 형상과 선	12
2) 감정의 색채	14
3) 판화와 오브제(objet)를 통한 재현	6
4. 작품 분석	18
1) 드로잉(Drawing)	81
2) 판화(Lino cut)	62
3) 오브제(Object)	6
III. 결론	42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현대인의 방향지침서, 50×30cm, 펜촉과 안료, 2006	9 1
<작품 2> 욕망의 꿈, 50×30cm, 펜촉과 안료, 2006	0 2
<작품 3> 밀고 뺏기기, 50×30cm, 마블링과 펜촉, 2006	2 2
<작품 4> 꿈속에서, 40×30cm, 펜촉과 안료 2005	2 2
<작품 5> 당신은 청량음료, 100×70cm, 펜촉과 안료, 2004	4 2
<작품 6> 화려한 외출, 71×150cm, 원단위에 Lino cut, 2005	7 2
<작품 7> Woman of desire I, II, 110×154cm, 원단위에 Lino cut, 2006	28
<작품 8> Connection I, II, 110×210cm, 원단위에 Lino cut, 2006	0 3
<작품 9> 흔적과의 대화, 100×70cm, 오브제와 Lino cut, Lithograph, 2005	2
<작품 10> 그곳에 머물다, 100×70cm, 오브제와 Lino cut, 2005	2 3
<작품 11> 발걸음, 71×150cm, 오브제와 Lino cut, Lithograph, 2005	4 3
<작품 12> 머리로 말하려하네, Installation, Mixed media, 2005	7 3
<작품 13> 이별 후 돌아오는 길, Installation, Mixed media, 2005	8 3
<작품 14> 나무가 되어주길 손 뺐었는데, 190×150×4cm, Mixed media, 2005	04

도 판 목 차

<도판 1> 본인, 「울고 있는 새」, 2003

<도판 2> 헬무트 뉴튼, 「모델, 아내와 찍은 자화상」, 1983

<도판 3> 르네 마그리트, 「규방의 철학」, 1947

<도판 4> 르네 마그리트, 「빨간 모델」, 1935

<도판 5> 살바도르 달리, 「밤과 낮의 의상」, 1936

I. 서론

예술은 심미적 표현을 통해서 유기적인 형식을 얻는데 의미가 있고 이미지를 매체로 하여 그러한 것을 전달하여 가치화 하고, 일종의 정신에 의한 표현 방법으로 예술가가 느끼는 것과 흡사한 결정적인 자극으로 대중에게 다가간다.

본인의 작업은 프로이드(Freud Sigmund, 1856-1939)의 예술론처럼 내부 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경계가 소멸되는 통합의 세계로 표출되어진다. 환상과 꿈을 통한 내면적 자아에 의한 감성적 표출을 통해 진정한 욕망으로 진화한다. 그 욕망은 한 무리의 흔적 속에 기억이 가미되어 굴절됨으로써 순간적으로 재결합된 욕망인 것이다.

여성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으로 인해 자신의 내부와 외부로 오가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해체시키면서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는 가변적인 존재이다. 본인은 여성의 삶의 감추어진 측면과 동일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자신의 관점과 감수성을 통해 표현된다.

본인은 나의 시선, 타인의 시선, 여성이 바라보는 시선,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험의 시선 등을 본인의 작품의 구성안에 나타내고자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여줌의 위치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보여 주고자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타인의 시선에 또는 사회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렇게 보여진 모습은 자신의 이미지로 규정된다. 우리의 시각은 '보기'만 하는 시선이 아니라 '보여짐'이 함께 하는 중첩적인 것이며 본인에 의해 감성적 투입으로 '보여짐'이 강조하는 것이 욕망하는 주체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옷이라는 매체를 통한 내면적인 감정이입이 되는 동기와 작

업이 형성된 내용적 측면으로 주체적인 자아인 몸과 본인이 말하는 욕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환상과 꿈을 옷으로 표현되는 욕망의 주체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을 언급하면서 욕망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요소로 상징적인 형상과 선, 감정의 이입으로 나타나는 색채와 판화에 오브제를 부여함으로써의 재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장으로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드로잉, 판화, 오브제로 나눠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작업동기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환상적인 요소를 보곤 하였다. 어릴 적 기억을 잠깐 언급하자면,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집까지 돌아오는 거리는 30분가량 되었다. 본인은 그 거리를 늘 혼자 걸어와야만 했다. 혼자 걷는 게 두려워 두 시간이 넘게 언니의 수업을 기다렸다 함께 집에 걸어오기도 했지만, 거의 매일을 혼자 걸어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 이렇게 혼자 걸을 때는 주로 노래를 하거나 혼잣말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혼자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걷는 그 길 위에서 본인은 본인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그림자와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라오는 7마리의 동물 캐릭터와 같은 알 수 없는 형상들을 보았다. 그 모습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날 본 형상들을 정신없이 그렸었다. 두려운 심리를 극복하고자한 아동기의 무의식이었는지라도 그날의 기억은 성인이 된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그 기억은 본인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해체되고 재생되기를 반복하면서 본인의 일상적인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도판1>은 이별을 하고 돌아온 후 옷을 옷걸이에 걸어둔 후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옷에 나타난 형상이다. 옷걸이에 걸어둔 옷 속에서 본인은 커다란 눈을 가진 새가 본인을 향해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걸 보았다. 새의 형상은 어떤 환청과 함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본인은 어릴 적 7마리의 동물 그림자 형상을 그렸을 때처럼 그것을 바로 기록에 가깝게 그렸다.

프로이트(Freud Sigmund, 1856-1939)는 예술론에서 진정한 욕망은 환상과 꿈을 통한 내면적 자아에 의한 감성적 표출을 통해 진화한다고 했다. 그 욕망

은 한 무리의 흔적 속에 기억이 가미되어 굴절됨으로써 순간적으로 재결합된 욕망인 것이라 했다.

본인의 작업은 프로이드가 위에서 언급한 재결합된 욕망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본인은 일상의 경험 속에서 내적인 감정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형상들을 또 한번 발견한다. 다시 말해 본인은 일상에서 경험된 감정을 무의식의 잠재된 이상으로 굴절시켜 작품에 반영하고자 했다.

2. 작품의 내용적 측면

1) 주체와 욕망

인간은 몸의 주체로서 삶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욕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존재이다. 주체와 욕망은 인간이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주체와 욕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종교와 도덕, 정치와 경제, 문화와 예술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이런 까닭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주체와 욕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역사적으로 문화가 변동함에 따라서 인간이 주체와 욕망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몸은 구체적 욕망의 근거이자 출발이다.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사물을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도 모두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까닭에 인간이 몸에 기초하여 '자아'와 세계를 이해하고 실현하는 것이며, 주체는 언제나 몸

이 함께한다. 주체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절대적 존재이다. 또한 주체를 다른 사물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인간은 주체의 성격이 대사, 감각, 지각, 생각으로 달라짐에 따라 주체의 관계맺음에 대해 동기 또한 달라지고 즉, 주체의 관계 맺음에 대한 이유도 필요, 요구, 욕구, 욕망으로 달라진다. 인간이 지각의 주체로서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감각작용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루어진다. 이로써 인간은 감각 작용의 느낌을, 마음을 통해서 사태에 대한 관계로 이해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관계에서 구성해서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타인과 본인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생각의 세계 속에서. 이와 함께 욕망은 내면의 세계에 바탕 하여 언제나 지금의 상태를 넘어선 보나 나은 상태, 즉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지향하기 때문에 초월적 성격을 갖는다. 욕망은 꼬리에 꼬리를 물로 이어지는 까닭에 인간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욕망은 계속 관계를 확대해 나간다.

인간은 주인으로써 있음과 없음, 진실과 거짓, 옳음과 그름, 선함과 악함 등으로 경계 지어 구분하는 가운데 ‘나’와 세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사물의 세계’와 구분되는 ‘나의 세계’를 자아로서 형성된다. 이런 까닭에 욕망은 언제나 ‘나’라는 주어(subject)를 갖는 문장의 형식으로 구성되고 표출된다.¹⁾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열정적으로.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은 만족이라는 문제에 대해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원하고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바늘이나 막대기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내면서 자극한다. 그 같은 욕망은 우리의 잠

1) 최봉영 지음, 『주체와 욕망』, 사계절: 2000, p.56

을 방해하고 꿈속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²⁾ 우리는 생소한 세계를 이해하고 궁극적인 만족을 찾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욕망은 진화한다.

욕망이라 하면 의, 식, 주, 섹스 등을 육체적 욕구가 원초적 욕망을 구성했지만, 현대인은 자신의 정신상태의 분괴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점점 물질에서 정신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고 있다. 『욕망의 진화』³⁾라는 저서에서도 언급하듯이 우리의 육체는 초월한 체험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사색에 잠겨 있다거나, 행복에 젖어 있다거나, 이 세상 밖에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내가 세상에서 기울이는 노력의 대부분은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단지 나의 실체를 담고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그릇 일뿐,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인 주체로서 마음의 안정, 정신적 치료, 영혼의 기쁨이 원초적 욕망을 대신한다.

2) 환상과 꿈

영감이라는 형태는 무의식에서 탄생하고 존재하지 않은 그 어떤 세계 안에서 환상과 꾸며진 형식으로써 충족 될 수 있다. 모든 예술은 다름 아니라 바로 환상 속에서 예술가가 가진 무의식적 갈망의 충족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창조를 향한 충동이 어린 시절의 무의식적 갈등에 의하여 결정

2) Melinda Davis 지음, 박윤식 옮김, 『욕망의 진화(욕망, 물질에서 정신으로)』, 21세기 북스, 2003, pp.14~16.

3) Melinda Davis 지음, 앞에 책, P.81, 이 책에서 ‘가상계’라는 의미를 이렇게 제시한다. 보이지 않고 신비로우며, 만질 수 없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세계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계를 특별한 의식의 세계, 혹은 승리의 영계라고 부른다.

된다고 믿었고, 예술작품의 내용도 꿈의 내용처럼 이와 유사하게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예술작품은 어린 시절 무의식적 소망에 대한 위장된 충족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히 해석된 작품은 무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이 된다. 아이들이 놀이할 때 꾸며 놓은 꿈과 환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작품이 겉으로 보여주는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회화나 소설도 그것에 최초로 불을 붙이는 무의식적 소망의 충족을 항상 가장 깊은 수준에서 포함하고 있다.⁴⁾

본인이 이미 경험하였던 여러 인상과 잠재된 잊어버린 것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며, 본인의 유년시절의 인상과 미래에 대한 의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는 꿈이 일종의 경험적 체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꿈이 지니는 의미와 목적은 억압과 관련 시켜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프로이드는 억압을 그의 정신분석학 구조를 받쳐주는 초석으로 여기고, 그것의 기능을 고통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의식을 거부하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논리적인 가치나 기타의 심리내면의 가치와 갈등을 일으킬 때 발생하며 갈등의 개념은 에너지가 의식적으로 솟아오르거나 의식으로부터 아래로 밀어내는 정신의 역동적인 개념을 말한다.⁵⁾

본인의 작업에서 환상은 단절된 이미지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형태의 왜곡, 사물의 병치로 인하여 생기는 환상적이고 잠재의식의 세계를 일깨우는 꿈의 세계를 표현한다.

초현실주의에서 무의식의 표현은 이성적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난 심리적 자동 사고의 즉흥적인 표현으로 작품의 동기형성 및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찾아 꿈이나 환상,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무의식의 내용을 구성했다. 초현실주의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는 어린 시절 그는 침실의 마루바닥에서 검은 깃털을 가진 ‘거대한 새’와 같은 환상적 요소를

4) Ellen Winner, 이모영, 이재준역, 『예술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4, p.44~45

5) Whitney Chadwick, 『쉬르 섹슈얼리티』, 동문사, 1992, p.82

보았으며, 청년시절에는 꿈속에서 가끔씩 침대 머리 앞에 서있는 투명한 여자를 보고했다.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상상력으로 실재를 생생하게 관찰하고 환상을 자유롭게 창안하며 그 역시 그림 작업을 하는 동안 마치 자신의 작품이 탄생하는 광경을 자기가 직접 보는 관찰자인 듯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는 선잠이 들어 자신의 사고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순간적으로 영감이 나타났고, 그 후 영감의 씨앗을 완성작으로 키워 나가는 고된 시기를 거쳤다고 술회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론가 행해있는 동안, 무의식은 계속 문제를 탐구한다. 무의식속에서 진화가 이루어진 뒤, 문제의 해결은 의식적인 정신에 완전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본인은 창의적 과정에 대한 스케치는 환상에서 오는 일상의 나의 관찰이다. 대부분의 예술가가 그러하듯 어떠한 사물을 볼 때, 이성적인 지각에 의해 객관적이기 보단 너무나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나의 감정의 시각적으로 바라본다. 본인에게 있어 환상은 현실과 꿈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큰 고리이며, 현실세계에 억압된 욕망에서 나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자유로우며 크나큰 희열을 느낀다.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적 환상의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3) 욕망의 주체로 표현되는 옷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소속된 환경의 표현이 되며 다른 한편, 자연스럽게 신분을 노출한다. 자신의 몸을 감싸는 중요한 도구의 옷은 또 하나의 신체인 것이다. 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지만 ‘옷이라는 매체’로 자신을 드러내기

도, 감추기도 한다. 즉,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그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누구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은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한다. 그럴 때 현실과 타협하게 되며 본인 스스로 만든 이미지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곧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 인 것이다. 또 옷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한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보통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욕망과도 결합된다. 또한 여성이 보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남성은 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연출하기도 하며, 옷은 육체의 연장으로서 때로는 영혼의 상징물로서 육체를 보이고 감추는 욕망인 동시에 역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옷은 욕망과 주체의 무대이자 동시에 표현될 수 있는 표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강보에 싸여 태어나고 수의로 생을 마감한다. 옷은 인간 삶의 출발과 함께 하며 삶이란 공연이 끝나도 우리는 옷과 함께 저승으로 가게 된다. 삶이란 공연을 수행하는 중에도 옷은 다양한 배역을 연기하는데 충실한 요소로 우리를 포장한다. 무수한 배역을 수행하는 배우를 멋있게 그리고 적절하게 치장해준다. 이렇듯 옷은 우리의 연령, 성별, 사회적 위치, 태생, 성향, 취향, 성적욕망, 정서 그리고 더 나아가 가치관과 우리가 처해있는 심리적 요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다.⁶⁾

욕망은 인간의 체계 내에서 이질적인 대상을 서로 교체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뭔가를 욕망하지 않을 수 없는 욕망의 주체가 된다. 즉 욕망은 자신 안에서 요구하는 틈사이의 현상으로 표출되는 그 어떤 것이다. 그 어떤 것, 본인은 그것을 대신할 자리에 바로 옷, 특히 여성의 몸을 감싸는 옷을 통한 모티브로 한다. 무엇인가를 채울 끊임없

6) 김민자, 『의상은 욕망과 영혼의 무대』, 문학과 교육, 2001, 6월호, p.199

는 욕망 안에 내·외적인 쾌락의 환상, 그 어떠한 현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헬무트 뉴튼 (Helmut Newton, 1920-2004)의 작품 <도판2>을 보면 사진과 거울의 이미지, 그리고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사진 속 모델은 거울 앞에 마주서 있으며, 작가 헬무트 뉴튼은 거울 반대편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작가의 아내가 지켜보고 앉아있다. 모델이 거울 앞에서 있지만, 모델의 이미지는 거울을 통해 찍히는 사진작가의 시선에 의해 구성되며, 동시에 모델인 주체를 보고 있는 타자(작가의 아내)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⁷⁾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자아에 대한 이미지이며, 하이델은 시각적인 리비도⁸⁾로 응시를 이끌어낸다. 하나의 오브제로서 모델은 자아의 의지보다는 주체 외부에 있는 타자를 통해 상징적 질서 안에 갇히게 된다. 잡지 속 패션 광고 사진은 사진 속 거울로, 거울 앞 누드모델은 동일시 하고 있는 패션 관찰자로, 사진작가의 아내는 세계의 패션계를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 혹은 대타자로, 작가의 사진기는 시선의 장치로 비유될 수 있다.⁹⁾

욕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진 않지만,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영역과 서로에 대한 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문제, 타자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는 의식과 무의식이 융합되어

7) 메카니즘(Mechanism) : 어떤 행위를 성취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심리과정, 환경에 적응하고 자아를 방어하며 욕구를 만족시키고 혼란을 해결하는 심적 기제로, 정신 분석학에서는 무의식적 방어 수단을 자칭한다.

8) 리비도(Libido) : 라틴어로 '욕망'이라는 뜻으로 이 말은 보통 말하는 성욕, 다시 말해서 성기(性器)와 성기의 접합을 바라는 욕망과는 다른, 넓은 개념이다. 정신분석학 용어로 인간 향동의 기저가 되는 근원적 욕망을 의미한다.

9) 이선재, 고영림, 『패션사진-문화와 욕망을 읽는다』, 숙명여대 출판국, 2004, p.181

있는 자유로운 사고의 순간을 즐겨 표현했다. 그러므로 마음의 현존에서 그 두 이미지는 통합되어 전혀 새로운 현실, 즉 초현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의식이 반전으로 무의식을 도입하고 관념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초현실주의 회화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패션의 발상전환에 수용되고 있으며, 직접 사실적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간접적인 응용의 모티브로써 형태, 소재, 구성의 전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옷의 일부분이 유방으로 변하고 구두 앞부분이 발이 되는 <도판3>을 보면, 두 사물이 자기 장소를 떠나서 존재하는 우연한 만남을 현실 전위의 근본적인 요소의 근거가 되며 초현실적 오브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온다. 즉, 옷이 무의식의 대응물로서 발견되며, 자극하고 환상의 세계를 표출시킨다. 또한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융합하여 좀 더 확장된 통합적 세계를 드러내 보인다. 또한 <도판4>를 보면 널빤지로 된 벽 앞에 놓인 신발은, 위쪽은 까만 구두 가죽인데 아래쪽은 사람 발이다. 구두란 본디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는 것이지만, 이 그림에서는 구두자체가 발이 되어 그 용도가 모호해졌다. 우리는 신발을 사람의 발에 비해 종속적인 사물로 인식한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사물들 사이에 나름의 위계를 따지는 습관이 있다. 장갑에 앞서 손을 상징하고 밥그릇에 앞서 밥을 상징한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전혀 다른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의 시각인 것이다.¹⁰⁾

다른 작품으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의 <도판5>와 같이 이 옷은 피부나 봉투, 갑옷, 혹은 창이 될 수도 있다. 또 지퍼가 있어서 열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달리는 대답에서 인간의 삶에 늘 붙어 다니는 항상적인 비극, 그것이 바로 의복이다. 의복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기억이자 충격인, 출생의 기억이라 달리는 믿었다. 의복과 몸을 비유하여 작가의 개인적 환

10) 『노성두, 이주현의 명화읽기』, 한길아트, 2006, p.469

상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암시한다. 우리가 보는 사물의 낱말, 명칭은 그 자체로서는 상징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물들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욕망의 주체라 할 수 있다.¹¹⁾

본인에게 있어서 옷은 또 다른 자아를 의미하며 그것의 주체인 사람의 혼적, 무의식적인 환상, 내적 심리인 욕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으로 인해 오는 내부와 외부간의 보여 지는 꿈과 환상을 전달하려는 소통이다.

3.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요소와 방식

1) 상징적 형상과 선

회화에서 시각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선으로 외형을 재현하는 욕망에서 시작되며 현대회화에 있어 선(Line)은 작가의 내면세계의 표현적 형을 드러내는 조형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추상미술에 오면서 선을 단지 사물을 묘사하는 재현된 예술에서 벗어나 순수조형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어 작가의 복잡한 내면세계와 무의식적인 감정표현의 수단으로 선의 중요성은 인식 되었다.

추상적 의미로 극대화시켜 선의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동적인 운동체로의 힘으로 표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결정된 기하학적 화면구성 요소의 성분으로 존재하는 반면 선 자체의 의미를 생명의 힘으로 보는 것이다. 즉, 내적 작용이나 노력으로 인한 행동이며, 생명은 활동을 유발하며 그 활동으로 인하여

11) 류근중, 『패션아트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연구』, 홍익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P.54

힘의 소비를 체험하는 것이다.¹²⁾

본인에게 있어서 형상은 정신적 자아를 재생산하는 주체이며 자신의 표상을 “변형하는 능력”이 있어 내부에 축적된 자원을 자유자재로 배출하는 총체적인 의미이다. 본인은 대상을 묘사하는 선이 아닌 선 자체의 자율적인 상징적 기호를 시각화하기 위한 요소로 표현되었다. 내면세계의 잠재된 행위와 감정의 깊이를 왜곡된 형상으로 유도하였다. 어떤 형상에 대한 자신의 표현 욕구로서 상징은 무의식에 의존하며, 시인이 어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비유적인 어휘를 구사하듯, 추상적인 사물에 관한 시적 표현이 다르듯이 본인 또한 형상에 대해 타인과 다른 무한한 상상력과 욕망을 내재된 형상화로 화면 속에 연출된다.

“인간의 지각하는 형(形)이란 관찰하는 순간 눈에 와서 닿는 자극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는 아른하임 (Rodolf Arnheim, 1904-)의 말처럼 일상적 체험 내에서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지각할 때 이미지들에 영향을 받는다. 본인은 어떠한 사물을 잠깐 또는 순간적으로 보더라도 기억 속에 어떤 이미지가 새길 수 있으며 기억된 이미지 속에서 내적인 환상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형상, 선으로 표현된다. 또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거쳐 갈 때 그 경험은 밀도가 짙어지면서 심리적인 현상을 갖추고 이미지나 사고로 구현된다.

본인은 환상적인 요소의 형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하학적 형상과 선의 율동감을 나뭇의 질서를 가지고 자유롭게 흩어져 어떠한 공간을 형성한다. 색, 면과 함께 형태를 표현하는 수단인 선은 대상의 공간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며 대상의 형태를 규정하는 윤곽선의 의미가 아닌 정서적인 나의 감정표출의 수단인 것이다.

12) W. Worringer, 『추상과 감정이입』,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2, p.14

형상으로 모든 자연이나 사물, 그리고 우주 질서를 표현하는 장으로 유동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꿈의 공간이며, 이는 정신 내면의 사유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예술에 있어서 내적 자율성은 자기 내면에서 자유로운 감성표현을 통해 조형세계를 모색함으로써 동적인 예술을 형성하며 감성영역을 확대시킨다.

본인 작품에 있어서, 선은 단순히 사물의 외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상징적인 형상과 선은 욕망을 반영하는 나의 언어이자, 사유공간을 이루는 조형적 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감정의 색채

작품에서 색채적 감정은 작가의 정서나 심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조형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색채는 시각에 의존 하지만 색채에 따른 심리적 현상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그리고 나아가서는 언어와 환경들과 어울리면서 하나의 심리적 현상을 일으킨다.¹³⁾ 시각 외에 다른 감각들로 색채에 반응한다는 사실은 직관의 차원을 가리킨다. 즉 직관이란 이해와 논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각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사물의 정수를 느끼는 능력인 것이다. 페디(Peddi)는 “검정색은 생리적으로 본다면 빛의 자극이 없는 상태를 뜻하나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빛의 자극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하나의 적극적인 자극으로 감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색채는 악보와 같고 그림은 작곡과 같다고 생각하였으며 색채는 정서에 대한 시각적 언어라고 생각하였듯, “흰색은 대 침묵으로서 우리의 심성에 작용한다. 흰색은 죽은 것이 아닌 가능성으로 차 있는 침묵인 것이다. 그것은 젊음을 가진 무(無)이다. 그리고

13) 박준원, 『예술노트』, 미술문화, p.132

가능성이 없는 무, 지는 해를 쫓아가는 죽은 무, 미래와 희망이 없는 영원한 침묵과도 같은 것이 검은색의 내적인 울림인 것이다. 검은색은 외적으로는 가장 음향이 없는 색이기 때문에 검은색과 비교하면 다른 색깔도, 말하자면 가장 약한 음향을 가진 색깔일지라도 더 강하고 더 명확한 음향으로 울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⁴⁾ 동양에서의 검정색은 모든 색채를 포용할 수 있는 근원적인 색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여시서 흑(黑)과 백(白)은 먹 선과 그 여백과의 관계로 이어진다.

본인의 작품의 검정색에 관한 관심은 정서적 사유로서의 한 표현 방식이다. 불록 판법으로 찍히는 검정색(Black)의 색조를 기본으로 모든 가능성이 내재된 근원적인 공간에서의 선과 형상에 생명력을 더해주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검정색이 현실과 사회가 주는 공허, 소외, 외로움의 감정 상태를 상징화하고 주제의식을 내포하며 그 안에 나타나는 색으로 보여진 화려한 원단위에 눌러서 찍혀 나오는 미묘한 조화를 유도하며 화면의 긴장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와 장치로의 내적 표현인 것이다. 또한 검정색은 그 자체가 단순하며 사용된 물체가 작아 보이게 하고 선이나 형태를 돋보이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다른 색과의 배색에서 대비나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색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심리적 위안이며 정신생활과도 관계가 있고, 회화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섬유라는 소재가 주는 부드러움, 따뜻함, 예민함, 감각적인 특성을 살린 감성적인 색채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면의 여백은 밝음, 빛, 순결 등을 드러내며 패션의 범주에서 공상적인 효과나 비현실성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 진다. 꿈과 이상의 세계의 모든 사물과 배경을 나타내기에 알맞다.

14) 칸딘스키, 권영실 옮김,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열화당, 1979, p.83

3) 판화와 오브제를 통한 재현

혼합매체 성을 띤 작품은 단일한 소재표면의 직감에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소재나 일상적인 사물을 변형시키거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기성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효용을 무시한 채 예술 속에 내재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창조된 오브제’로 예술의 관념을 전환¹⁵⁾하여 사용함으로써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초현실주의자들의 오브제의 해석은 다다주의의 즉물적 인식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런 허무함 속에 오브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갖고 탐구해 나간다. 다다의 허구적인 오브제 논리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시각으로 오브제를 만들어간다. 현실적인 의식의 단계를 넘어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인간 환영까지 추적해 냄으로써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런 다양한 오브제 적용에 전혀 새로운 안목으로 또 하나의 조형적 리얼리티 즉, 꿈과 환상과의 실현가능한 도구인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간접적인 요소로 판을 오리고 천을 오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오리기의 근원적 출발은 어릴 적 인형의 옷 입히기로 돌아간다. 어릴 적 스케치북에 인형을 대고 그 위에 색연필과 펜으로 좋아하는 옷을 그리며 꿈의 세계로 빠져들곤 하였다. 유아적이고 여성적인 취향이 강한 어린 시절의 잠재된 기억의 여러 상이 겹쳐서 형성된 이미지인 것이다.

전통적인 사과의 틀로부터 벗어나 주관적이고 서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하여 자유로운 표출을 의도하는 작가들은 그 표현에 있어 유동적인 매체를 요구하

15) 오광수, 『전환기의 미술』, 서울: 열화당, 1976, p.75

게 된다. 본인은 섬유 소재품의 매체를 사용하여 본인의 의도와 접근하려 하였다.

내적인 욕망이 없이 작품이 제작되었을 때는 본인만의 환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묘사했다 기 보다는 가능한 것에 꿈과 환상이 덧붙여 환기 시킨다. 환상과 꿈에 나타난 시적이고 상징적인 형상을 판이라는 간접성을 이용해 옷의 오브제로 잠재 의식속의 공상을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오브제의 개념을 또 다르게 재인식하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4. 작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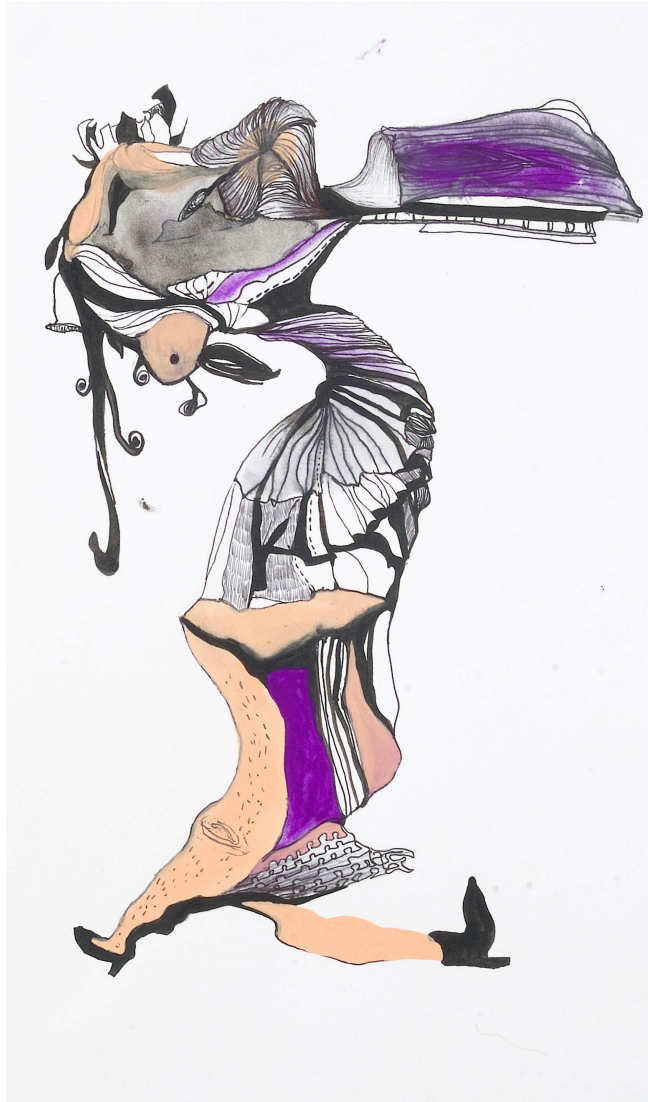
1) 드로잉(Drawing)

본인 작품에 있어서 표현의 시작은 매일 기록된 드로잉에서 시작된다. 본인이 말하는 드로잉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세계라 할 수 있다. 본인에게 있어 심연에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왜곡된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내안에 보이는 꿈의 무한한 힘에서 연상된 특수한 형태에 근거를 두어 깊숙이 잠재된 욕망의 비합리적인 형태인 것이다. 주체적 자아와 무의식이 결합된 자아, 그것은 본인에게 있어 기이하면서도 인간 본연의 욕망 표출에 의한 또 하나의 새로운 우주의 세계인 것이다.

드로잉의 표현 재료로 본인은 펜촉을 주로 이용한다. 잉크를 문혔을 때의 느낌과 강약의 조절에 의해 나오는 묘한 매력이 있다. 드로잉에서 나타나는 색은 무의식적인 그 순간의 느낌의 표현대상으로 자유롭게 표현되며 색은 안료를 사용한다.



<작품 1> 현대인의 방향지침서, 50×30cm, 펜촉과 안료, 2006



<작품 2> 욕망의 꿈, 50×30cm, 펜촉과 안료, 2006

【작품 1】 현대인의 방향지침서

【작품 2】 욕망의 꿈

【작품1】 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와 무의미,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더욱더 자아를 부각하고 표출한다. 현대인은 관계의 설정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며 사람들은 각자 타인에 의한 자기 확인, 현실도피, 그 어떤 것에 방향을 제시해 놓고 소외된 현재의 삶에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벼움과 무거움, 생에 대한 초연함과 초월을 통해 인간이 미완성이고 불안정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형성시킴으로서 만들어지는 존재인 것이다. 또한 【작품2】 처럼 나는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삶의 초월의 세계에 새로운 세계로의 희망을 둔다.

【작품1】 에서 보면 인체는 자연스레 빠지고 옷만 남이 있지만 그 안에 신체는 자연스레 베인다.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놓고 그 길을 갈 때 내안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 천사의 날개가 한쪽은 검게 타버리고, 내안에 붉게 물들여 또 다른 유혹이 오는 한편, 허리 안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십자가가 나온다. 즉 자신의 통제의 규율을 만들어 놓는다. 다리는 온대 간대 없고 손가락이 나온다. 두 손가락은 전혀 다른 곳에서 방향을 제시한다.

【작품2】 에서도 보다시피 전체적인 형상은 목까지 올라온 의복의 형태로 나타난다. 스스로가 제시해 놓은 방향에서 그 꿈으로 가는 길은 무한히 길고 멀다. 가슴정도 갈 때 쯤 그 안에 집과 같은 형상이 등장한다. 그 안에 욕망의 꿈이 담겨져 있다. 그 해답은 보는 이의 스스로에게 묻는다.



<작품 3> 밀고 땡기기, 50×30cm, 마블링과 펜촉, 2006

<작품 4> 꿈속에서, 40×30cm, 펜촉과 안료, 2005

【작품 3】 밀고 뺨기기

【작품 4】 꿈속에서

【작품3】 은 마블링에서 시작되어 우연한 효과에 기름의 섞임과 흐름이 마치 밀고 뺨기는 듯한 타인과의 관계처럼 느껴졌다. 두 형상의 옷은 자신을 확연히 드러내지 않은 목까지 감싸는 옷을 입고, 소리 없이 자기 영역에 싸움을 하듯 팽창한 밀고 뺨기기가 시작된다. 어느 한쪽은 공격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은 공격을 받는다. 자기 영역이 넓혀진 공격자는 그 나름의 여유의 손가락 브이를 몰래 드러낸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보이지 않은 밀고 뺨기기와 주도권 싸움을 마블링의 물과 기름의 섞임에 자연스런 효과에 이미지를 덧붙여 넣어본 작업이다.

【작품4】 는 내가 꿈에서 본 이미지이다. 나는 매일 같이 꿈을 꾸다. 꿈속에서 나는 현실에서의 연장선이자 또 하나의 현실이다. 꿈속에서의 나는 늘 당당하고 옷이 그 사람의 날개이듯, 날개만 달고 어디론가 하염없이 간다. 그 공간은 전혀 알 수 없는 공간이며 깨어나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러다 누군가 내게 얘기한다. 해석할 수 없는 소리와 함께 꿈에서 깨어난다.



<작품 5> 당신은 청량음료!, 100×70cm, 펜촉과 안료, 2005

【작품 5】 당신은 청량음료!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털어 놓는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라기 보다는 위로 받고 싶고, 이해 받고 싶은 마음에 말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이 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지적 받는 충고라면 가까운 사람마저 먼 타인으로 느껴지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여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파서 그 사람을 찾으면 그냥 그 사람의 아픈 심정만을 읽어 주려하고 상대방이 편히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여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줌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하나 더 얻는 것이라 생각한다.

토루소의 여자 신체와 옷의 이미지를 모호하게 결합하여 나타난다. 적막하고 상상했던 그 마음이 누군가로 인해 여러 분열이 생기며, 체온이 변하고 가슴 안에 여러 개의 문이 서서히 열리며 바뀌어간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상대방에겐 크나 큰 힘이자 변화이다. 타인으로 인해 모든 게 변하고 그 상대가 특별한 존재임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표현한 작품이다.

2) 판화(Lino cut)

본인작업에서 블록판의 일종인 리노컷(Lino cut)의 선택은 조각칼로 자유자재로 움직임의 칼맛과 리놀륨(Linoleum) 판에서의 배경이 불필요함을 오리고 따내 분리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에서 선택하였으며, 공간이나 기계에 구애받지 않고 찍을 수 있고 어떠한 다른 물체와도 자연스레 찍히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단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질감과 특성으로 그 안에 욕망에 대한 자아표현을 형상화하는데 신체가 아닌 옷으로, 옷 안에 몽상적인 다른 형상이 들어가면서 외형은 주체를 고스란히 따른다. 그 옷의 바탕은 원단에 되며, 판 안에 들어가는 검정의 이미지는 또 다른 형상으로 표현된다.



<작품 6> 화려한 외출, 71×150cm, 원단위에 Lino cut, 2005



<작품 7> Woman of Desire I, II , 110×154cm, 원단위에 Lino cut, 2006

【작품 6】 화려한 외출

【작품 7】 Woman of Desire I, II

인간의 인체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자기애이다. 자신이 동경하는 결핍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정신적인 정서 속에 자신만의 은밀한 감정을 육체라는 아름다움을 향한 분모로 이완시킨다. 그 육체는 옷으로 대변되며 자연스레 인체는 빠지고 주체의 의복이 대신한다.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남성은 자신과 남들과 구별하고 스스로를 행위의 주체자로서 느끼는 것을 통해 자신을 규정한다.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작품6,7】에서 타자에게 보여 지는 허영의 옷으로 타인의 시선을 즐기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욕망과 자아표현인 것이다. 이렇듯 현존에 내가 아닌 화려한 모습의 자신을 열망한다. 옷 안에는 또 다른 내면적 자아로 비현실적인 이상을 꿈꾸며 여행을 하고 꽃을 피운다. 서로 상반된 세계로 보여 지지만 즉, 환상과 꿈의 공간인 하나의 자아로 욕망을 표출시킨다. 본인은 억제된 욕망표출의 갈망과 꿈은 옷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며 원단의 색으로 시각효과를 더해주려 했다. 【작품7】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찍히는 부분은 현실 세계인 의식적인 세계와 그 안에 리노 컷으로 파진 형상과 원단이 드러나는 부분은 비현실 세계 즉, 무의식적 환상적인 꿈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작품 8-1> Connection I , 110×154cm, 원단위에 Lino cut, 2006

<작품 8-2> Connection II , 110×70cm, 원단위에 Lino cut, 2006

【작품 8】 Connection, I, II

사회집단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수많은 연결된 고리로 자아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각인하며 살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타인과의 무수히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상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이나에 대해 말하고 나에게 바라는 바를 곧 내 자신에게 확인함으로써, 상징적 질서 속에 배정해 준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나에게 동일성을 획득하게 된다.

타인은 나의 존재와 내 자신을 아는데 불가결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조건하에 나의 내면의 발견은 내 앞에 놓인 하나의 자유로서 나와 일치하거나 대립하여서만 생각하며 원하는 타인을 내게 발견시켜 준다. 것처럼 우리는 상호주체성이라고 부르려는 하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타자의 옷이라는 걸 표면으로 나에게 어필되며 그와 또 다른 자아가 형성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지하철 안에서 내 앞에 앉은 사람들을 보며 스쳐 지나간 관계 속에서도 서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 관련이 있을 꺼라 생각 되어졌다. 그들은 아무 말 없지만, 옷 안에 그 형상들은 서로 묻고 답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은 관계와 그들의 대화는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나타난다.



<작품 9> 흔적과의 대화 , 100×70cm, 오브제와 Lino cut, Lithograph, 2005

<작품 10> 그곳에 머물다 , 100×70cm, 오브제와 Lino cut, 2005

【작품 9】 흔적과의 대화

【작품10】 그곳에 머물다

【작품 9】 사람은 어떤 고통을 온전히 경험했을 때만 그 고통에서 치유될 수 있듯이, 고통을 정신의 한구석에 처박아 두고, 그 존재를 고집스레 부인하면서도 침묵하게 하며, 진통제와 진정제로 목살해도 소용이 없다.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려면 그 고통과 마주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의 흔적은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체인 대상으로부터 옷에 고스란히 남는다.

질고 바랜 초록색 티는 8년 동안 나와 함께한 옷이다. 정이 많이 든 이 옷은 그냥 오래된 옷이 아닌 나의 오래된 친구이자 추억이 깊은 옷이다. 헐거워져 입기 곤란해진 이 옷은 결국은 작업복으로 쓰였다. 어느 날이었을까? 사랑의 흔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을 때였다. 작업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구내식당을 찾았다. 생선을 발라 먹다가 목에 매인 듯 목에서 넘어가질 않았다. 그 가시는 내 가슴을 콧 찌르며 온 가슴으로 번져 나간다. 마치 내가 아닌 내 옷이 나를 대변해 주고 있었다. 옷의 일부분은 오브제로 드러나며 유기적인 형상들은 리노 컷으로 표현되어지고, 석판화로 상처의 흔적이 번져 나가는 요소로 표현 하였다. 【작품10】은 시간이 흘러도 정체 된 것처럼 과거에 멈춰있다. 주체인 자아는 빠져있고 내면의 모습을 대신하는 옷만 남아 있는 것이다.



<작품 11> 발걸음, 71×150cm, 오브제와 Lino cut, Lithograph, 2005

【작품 11】 발걸음

누구나 자신의 보호막을 만든다. 그리고 어떠한 기호로든 그모습은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다. 상처받기 싫어서 자신을 좀 더 꾀꾀 동여맨다. 목과 다리까지 감추고 어디론가 향한다. 현재의 나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일단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이다. 감추어진 목도리와 부츠라는 대상물 안에 그 사람의 공허한 무의식의 세계는 공존한다.

옷을 입을 때 색이 중요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며 더 가미해 두가지 색상의 대비가 있을 때 더해진다. 검은색은 의식 깊은 곳, 또 다르게는 현실적인 세계에 회답하고 평화의 색깔인 흰색에 대립한다.

3) 오브제(Objet)

오브제의 작업을 현실적인 의식의 단계를 넘어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또 다른 의미로 하나의 리얼리티, 즉 사물의 물적 형태에서 오는 단순한 사물개념이 아니라 오브제 자체에서 느껴지는 관객의 이성과 감성이 작용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과 무의식의 기억이 내통하여 옷이라는 매체 안에 고스란히 흔적처럼 남는다. 오브제의 객관적인 해석과 의미를 떠나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공상을 옷이라는 대상물에 부여함으로써 그 개념을 또 다르게 재인식 하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작품 12> 머리로 말하려하네 , Installation, Mixed media, 2005



<작품 13> 이별 후 돌아오는 길 , Installation, Mixed media, 2005

【작품 12】 머리로 말하려하네

【작품 13】 이별 후 돌아오는 길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순간의 현상, 장소, 그때의 심정, 옷차림, 본인이 경험했던 현실에 대한 부분적인 회상들의 추억을 담고 있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는데 때로는 그러한 작용이 실제로 그 상대가 불쑥 나타나는 것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자아내기도 한다. 여기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옷이라는 오브제로 연관성을 분명하게 부각된다. 【작품12,13】은 흔적의 남이 있는 오브제 위에 내적인 형상들이 투여가 된다.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어내어 드로잉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려 했다. 이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림자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자아로 표현된다.

【작품12】, 타인과의 관계를 뗫다보면 상대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또는 받는 말들을 내 뱉을 때가 있다. 결코 진실이 아닌, 진실을 외면한 채 가슴이 아닌 이성적인 머리로써 말할 때가 있다. 흔적이 남아있는 옷 위에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검은색과 흰색은 서로 대립하면서 무의식의 세계에 회답한다.

【작품13】, 한없이 걷고 또 걷던 날... 쇼인도에 비친 나의 모습이 눈에 포착된다. 퉁퉁 부어 몽롱해져 나의 다리가 나를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작품 14> 나무가 되어주길 손 뺐었는데, 190 × 150 × 4cm,
Mixed media, 2005

【작품 14】 나무가 되어주길 손 뺐었는데...

누구에게나 ‘나란 존재’만큼이나 소중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매일 반복된 삶에서 그 사람 때문에 설레고, 웃을 수 있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며 늘 그 자리에 변치 않는 그런 나무 같은 존재 말이다. 그 어떤 나무보다 초라할지라도 곳곳한 나무 한그루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나무의 나이테가 많아질수록 나무는 많은 추억을 가지고 뿌리 깊게 자리 잡는다.

본인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무로 비유했고 뿌리 깊게 뺐은 나무를 확대하며 조형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무의 뿌리와 손은 일맥상통한다. 오래된 고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꿈꾸는 세계와 공간의 펼쳐짐을 무늬와 선으로써 표현하였다. 짙은 핑크계열에 따뜻한 소재의 두꺼운 원단으로 190X150X4cm 라는 대형의 홈드레스식의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종이를 대신한 오브제가 된다. 그 위에 찍혀있는 이미지는 마모륵 이라는 큰판에 드로잉을 옮겨 조각도로 새긴 후 오려낸 판을 대형 프레스기에 찍어 낸 것이다. 작업을 하면서 판판하지 않고 두꺼운 소재위에 찍어내는 거라 찍는데 신중을 가해야 했고, 두껍게 올라간 잉크에 에디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존재적 의미를 상징하는 해석으로 오브제를 직접 제작하여 그 형상이 들어가면서 의미를 부여한다.

Ⅲ. 결 론

어떠한 대상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의 시각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시각이 선택한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지각하는 일을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잊혀 질 순간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한다. 시간이 흐른 뒤 남겨진 기억 속에서 흔적을 들추어내고 일상의 체험들을 발견해 나간다.

본인의 작업은 본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내면세계를 발견하고, 꿈과 환상을 자아표현과 연결하여 탐구하고, 정신적인 사유공간을 욕망표출의 의식화로 끌어들이며, 내면의 감성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작품의 조형적 표현매체로써 판화와 오브제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판화의 개념 정립과 더불어 본인의 조형세계를 좀 더 심화하고 더욱 깊게 이해하고자 함에 있었다. 또한 상징적 요소들을 통해 본인 작업에 대한 분석적 근거를 얻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곽의 형체와 그 안에 보여지는 공간, 또는 이미지들은 사실적 표현이 아닌 본인의 감성이 투영된 주관적인 표현들로 드로잉적인 표현요소와 형, 점, 선으로 분절, 조합하여 표현되어졌다. 이것은 내적, 외적 풍경을 그려냄으로서 현실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와 내적 심리의 욕망으로 표현하고자 함이었다.

본인은 욕망에 관한 자아표출 과정에서 프로이드의 예술이론을 바탕으로 두었다.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얻었을 지라도 왜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며 그 다음 욕망을 향해 가는가. 우리의 삶은 그냥 결핍이 아니라 끝없는 대화이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그릇 일뿐 인간이 주체로서 욕망은 억압된 표출에서 오는 마음의 안정, 영혼의 기쁨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인간의 주체와 욕망으로 보여진 자아표현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다가온 대상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자아의식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내면세계와 현실세계에 조화롭게 의문을 던져 본인의 작업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업의 이론적 정립과 행위에 있어서 그 본질적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의 기회로서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새로운 전개의 기반으로 적용하여 조형적 연구에 더 심층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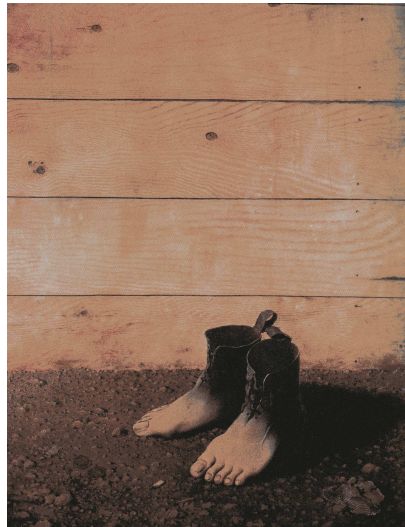
<도판 1> 본인, 『울고 있는 새』,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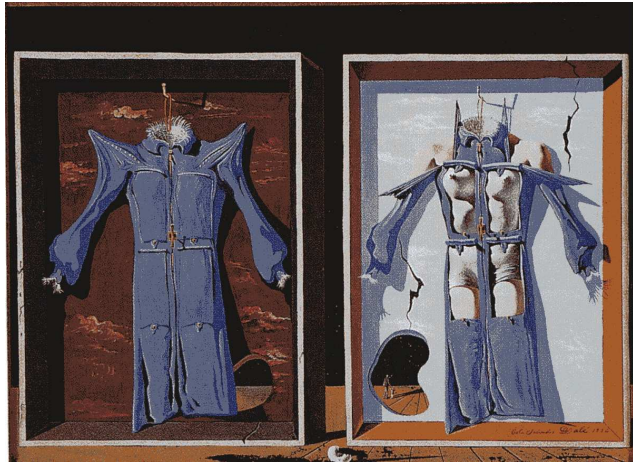
<도판 2> 헬무트 뉴튼, 『모델, 아내와 찍은
자화상』, 1983



<도판 3> 르네 마그리트, 『규방
의 철학』, 1947



<도판 4> 르네 마그리트, 『빨간모
텔』, 1935



<도판 5> 살바도르 달리, 『밤과 낮의 의상』, 1936

참 고 문 헌

- 김민자, 「의상은 욕망과 영혼의 무대」, 문학과 교육, 2001, 6월호.
- 「노성두, 이주헌의 명화읽기」, 한길아트, 2006.
- 박준원, 「예술노트」, 미술문화.
- 이선재, 고영림 지음, 「패션사진」-문화와 욕망을 읽는다」, 숙명여대 출판국, 2004.
- 오광수, 「전환기의 미술」, 열화당, 1976.
- 최봉영지음, 「주체와 욕망」, 사계절:2000.
- 칸딘스키, 권영실 옮김,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것에 대하여」, 열화당, 1979.
- Ellen Einner, 이모영, 이재준역, 「예술 심리학」, 서울:학지사, 2004 .
- Melinda Davis 지음, 박윤식 옮김, 「욕망의 진화」, 21세기 북스, 2003.
- Whitney Chadwick, 「쉬르 섹슈얼리티」, 동문사, 1992.
- W. Worringer, 「추상과 감정이입」, 대구:계명대학교 출판부,1982.
- 류근중, 「패션아트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ABSTRACT

Self presentation research about desire expression

Choi Yoon A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what studied the contents that I tried to express in the course of unfolding of work an the manufacture course on the works manufactured from 2005 to 2006

The procedure of creativity is relying more on to self feelings or emotions than logical thoughts. It has believed for a long time that the art is an activity of emotion; moreover, it is supported by art theory of Freud that the work is done by impulse or desire.

Modern people's consciousness of existence is a desire to verify their beings. Moreover, women wanted to find themselves under many limitations and suppressions. Modern women are trying in many ways to be admitted as beings in the society as women it self. Men determine themselves while distinguishing themselves from the others to feel that they are the main of their acts, however, women determine themselves while they face the others to be verified, and their

substances of being that include senses and unconscious desire shows as internal or external desires.

This research has started with the problem of recognition as women in realit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take the desire of self recognition into reality, furthermore, to show the meaning of work that is expressed by illusions and touches through clothing with the combination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Through the image of women, I wanted to express 'visual desire' and 'dream' that is surrounding the object, moreover,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s, I wanted to reveal others desire by visualizing my desire.

I focused to emphasize the expression of the image using obzee and print. The works of mine expressed the desires and the symbolic shapes of daily life's suppressed ambition with emotional colors. By expressing psychologically suppressed desire to recognize ego inside and by expressing the image of it, I took it as a big motivation to look back my works to find the way to go forward.